광주은행 급여 지방은행중 최저

평균 4300만원…대구 5800만·경남 5000만·전북銀 4600만원

씨티은행 6600만원 최고

국내 주요 6대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 직원의 급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과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은행이 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행과 제주은행이 5300만원, 경남은행이 5000만원, 전북은행이 4600만원 순이었다.

광주은행 은행장 연봉은 1억9500만원, 감사 1억3800만원, 사외이사 2300만원이었다. 직원수에서는 대구은행이 2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행 2801명, 경남은행 1836명 순이었으며 광주은행은 1310명, 전북은행 941명, 제주은행은 34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은행 남자직원 평균 급여액 5700만원, 여직원 평균급여액은 2천100만원 이었으며 평균근속연수는 남 16.2년, 여 5.5년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의 급여가 적은 것은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1.5년으로 15.9년인 대구은행 등 다른 은행(경남은행 9년 제외)보다 낮아 고연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여직원 급여가 2100만원으로 남자직원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주요 8개 은행중 한국씨티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6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6300만원,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6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환은행은 5800만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5600만원으로 비슷했다. 하나은행은 5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영진의 급여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6억원대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은 10억원을 넘었다. 은행 경영진인 등기이사의 평균 급여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6억4300만원과 6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은행은 4억2000만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은 3억원대였다. SC제일은행은 2억23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은행의 모 기업인 금융지주사의 경우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등기이사의 급여가 평균 13억2000만원과 10억5700만원으로 나란히 10억원을 넘었다. 하나금융은 7억9200만원이었으며 등기 이사가 5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KB금융은 5억5000만원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역·다시마 부각 먹고 방사능 걱정 뚝!

광주신세계(대표·조창현) 지하1층 식품관 행사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다양한 부각을 선보인다. 또한 최근 방사선 노출에 관심이 높아져 미역부각 및 다시마 부각도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보해 막걸리 '순희' 모델에 송지효

배우 송지효가 보해양조(대표 임건우)의 우리쌀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의 얼굴이 됐다.

보해는 최근 출시한 웰빙 막걸리 '순희' 모델로 송지효와 전속계약을 맺고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지면광고 촬영을 마쳤다.

1005 국내산 쌀과 노령산맥 지하 253m의 천연암반수를 이용해 빚은 막걸리 '순희'는 보해만의 차별화된 장기 저온발효와 후숙성 공법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

특히 막걸리를 만들때 생기는 술지게미를 미세하게 분쇄한 후 걸러 맛이 깔끔하고 부드럽다. 또한 파스퇴르 공법(저온 살균법)을 적용해 막걸리 본연의 영양과 신선한 맛이 균일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해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송지효가 웰빙 막걸리 '순희'의 친근한 브랜드명과 순한 맛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송지효를 모델로 활용한 지면광고, TV CF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젊은 층 공략과 더불어 막걸리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지효가 막걸리 '순희' 모델로 등장하는 지면광고는 4월 중순께 만나 볼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새 옷 갈아입은 카스 "젊어졌네"

젊음의 맥주 카스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오비맥주는 11일 카스의 대표 브랜드인 '카스 후레시' 맥주의 병에 붙인 라벨의 디자인을 더 젊고 활력넘치는 이미지로 교체하고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후레시의 '톡 쏘는' 맛의 특성과 젊음, 활력,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빛을 강하게 뿜어내는 듯한 은색 방사형 배경을 돋보이게 해 고유 속성인 '톡'한 느낌과 젊음의 무한한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간결하고 모던한 글자 타입과 사선이 주는 생동감은 시대에 맞는 감성적 측면을 더했다. 이번 BI(brand identity)리뉴얼은 지난 1994년 카스 맥주 출시 이후 5번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부업체 대출금리 비교하고 고르세요"

비교공시 시스템 가동

대부업체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1일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1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시스템에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는 직접대출과 중개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중개대출로 구분돼 최저, 최고, 평균금리와 금리구간별 비중이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발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대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몇몇 대부업체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산정에 중개 수수료가 제외돼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의 참여 업체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장사 작년 수출·내수 증가

수출액 39%·내수규모 31%↑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의 수출과 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10년 12월 결산법인 수출 및 내수(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수출금액은 총 1조920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3802억원)보다 39.13%(5401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40.30%로 전년보다 1.40%P 증가했다.

지난해 내수규모는 총 2조8441억원으로 전년동기(2조1670억원)보다 31.25%(6772억원) 증가했고 비중은 59.70%로 1.40%P 감소했다.

2010년 수출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1조6048억원), 대유신소재(1297억원), KPX화인케미칼(870억원) 등의 순이고 내수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1조972억원), 조선내화(4100억원), 부국철강(296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증가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 대유신소재, 화천기공 등의 순이고 내수 증가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 대유에이텍, 조선내화 등의 순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290조 육박…최대 규모

저축銀 수신 넉달만에 증가세

'영업정지 사태'를 넘긴 저축은행들의 수신이 3월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290조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2011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중 저축은행 수신은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7000억원가량이 늘면서 201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업정지가 잇따랐던 지난 2월 저축은행의 수신은 1조9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올해 3월말 수신잔액은 7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지난 2월 연평균 15.22%(잠정치)에 달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들어 예대금리차가 계속 1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여서 저축은행들이 '대출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3월중 은행권 전체 수신은 KB국민카드 분사에 따라 국민은행이 발행한 8조7500억원대의 은행채가 카드로 이관되면서 2조7000억원이 줄었다.

한은은 "2010년 11월 이후 지속된 금리인상, 저축은행 가지급금 유입 등으로 3월중 정기예금은 늘었으나, 법인세 납부 등의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은 큰 폭으로 줄면서 3월중 은행 수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8000억원이 늘어났으나 전달(3조7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

부문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2월(1조8000억원 증가)에 이어 3월에도 2조원이 늘어났으나 대기업 대출은 3월들어 80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어음(CP)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및 에너지공기업의 대규모 상환으로 발행보다는 상환이 8천억원가량 많았으며, 회사채는 지난 2월 2조4000억원에서 3월에는 2000억원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됐다. /연합뉴스